

No.54

Japan Weekly Digest

2010. 9. 27 ~ 10. 4

□ 금주의 이슈

- 한일산업기술페어2010 개최
- 중국에서 구속된 일본인 3명 석방
- 엘피다, 세계 최첨단 30나노미터 D램 개발
- LG전자, 일본TV시장 진출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경단련 회장, 센카구(尖閣) 어선문제 재발 방지 요청
- 카자흐 원자력건설 가능성조사 실시
- 미쓰비시自, LG화학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동개발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오하타 경산대신, 이란에서 유전개발 철수 검토
- 경산성, 카자흐에 희토류 생산협력 요청
- 타케후지(武富士) 채권보유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민주당 대표선거와 심화되는 당내 갈등
(주간다이아몬드)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한일산업기술페어 2010 개최

- 29일, 일본기업들이 품질·납기준수·기술력이 우수한 한국 부품회사로부터 조달문제 등을 상담하기 위한 「한일산업기술페어2010」이 개최되었음
- 개회식에는 지식경제부 박영준 제2차관, 日경산성 마쓰시타 부대신, 김희용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(동양물산 회장), 사사키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(전 미츠비시상사 회장) 등 약500명 참석
- 이번 행사에는 산업협력 유공자 포상, 부품소재 조달공급상담회, 모노즈쿠리·환경에너지·신경영세미나, 기술지도 매칭 상담회 등이 진행

○ 중국에서 구속된 일본인 3명 석방

- 중국 허베이성 군사관리구역 불법촬영 혐의로 중국 치안당국에 구속되었던 일본건설회사 직원 4명 중 3명이 30일 석방되었음
- 20일 체포된 일본 중견건설회사인 후지타의 직원 4명 가운데 3명은 군사관리구역 침입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석방되었음
- 직원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중국에 버린 화학무기 회수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현지 답사하던 중 체포되었음

○ 엘피다, 세계 최첨단 30나노미터 D램 개발

- 일본의 대표 반도체기업인 엘피다가 29일, 세계최소 30나노 초반급 D램을 금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
- 엘피다가 30나노 초반급 공정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7월부터 30나노 중반급 D램을 생산해 오던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첨단 D램 기술을 보유하게 됨
- 30나노 초반급 D램의 생산성은 40나노 중반급 D램에 비해 45% 높고, 생산비용은 30% 낮음. 전력소비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제품

○ LG전자, 일본TV시장 진출

- 평판TV시장에서 세계점유율 2위인 LG전자는 27일, 3차원(3D)영상대응 액정TV등, 10개 기종을 11월부터 일본에서 판매한다고 발표
- 사이즈는 22~55형으로 매장가격은 8만~48만엔 예상, 기타 3D에 대응한 블루레이·디스크(BD)도 판매할 계획
- 이규홍 LG전자 일본법인장은 "프리미엄 마케팅을 통해 3년 내에 두 자리 수의 점유율을 올리겠다"고 강조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경단련 회장, 센카구(尖閣) 어선문제 재발 방지를 요청
 - 요네쿠라 경단련 회장은 27일, 기자회견에서 센카구(尖閣)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문제로 日·中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, 「日·中이 하루빨리 평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」라고 언급
 - 구속되었던 중국어선의 선장 석방에 대해서는 「정부가 빠른 시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」였다고 평가
 - 요네쿠라 회장은 「정부가 중국 요직 인사들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향후 비슷한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하는 체재를 갖추어야 한다」고 강조
- 도시바 등 카자흐 원자력건설 가능성 조사
 - 도시바 등은 카자흐스탄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
 - 카자흐스탄의 정부기관과 29일, 원자력조사에 관한 MOU 체결
 - 카자흐 국내에는 원전이 없을 뿐더러 효율이 좋지 않은 화력발전소도 많아 카자흐는 원전건설을 위해 일본정부에 조사를 의뢰하였고, 연말까지 발전규모나 입지·장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
 - 일본과 카자흐는 금년 3월, 원자력협정에 서명. 협정이 발효되면 일본에서 카자흐에 원전수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. 일본은 원전건설과 운영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우라늄의 안정적인 공급 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
- 미쓰비시자동차, LG화학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동개발
 - 닛케이신문은 26일, 미쓰비시자동차와 LG화학이 환경자동차의 기간부품인 리튬이온전지시스템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고 보도
 - LG화학이 제작한 리튬이온 배터리에 전력제어장치와 충돌 안전 기구를 추가한 배터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, 미쓰비시 나고야제작소에서 실증시험을 한다는 계획
 - 미쓰비시자동차는 2012년 생산예정인 신형 전기자동차에 LG화학과 공동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할 방침(미쓰비시가 외국기업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)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오하타 경산대신, 이란에서 유전개발 철수 검토
 - 경제산업성이 권리를 갖고 있는 이란 남서부의 아자데간 유전개발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
 - 핵개발 문제를 안고 있는 이란에 대해 미국정부가 추진하는 제재조치 대상에 일본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수를 검토
 - * 아자데간 유전의 매장량은 260억 배럴(세계최대급)
 - 제재 대상기업 리스트에 포함되면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 금지, 자금조달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됨. 경산성은 미국에 간부를 급파하여 일본기업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도록 미국과 교섭을 진행
- 오하타 경산대신, 카자흐에게 희토류 생산협력 요청
 - 오하타 경산대신은 29일, 카자흐스탄의 산업기술 차관과 가진 회담에서 희토류 생산에 협력하자고 제안
 - 경산대신은 「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」라고 언급하고, **희토류 확보를 위해 중국이외의 지역으로 조달처를 다양화할 방침**
 - * 카자흐는 세계 매장량의 약 20%를 보유
 - 경산대신은 30일, 경단련과의 경제운영 회의에서 희토류 확보를 위해 「**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안정조달대책을 검토하겠다**」고 언급
- 경산성, 타케후지(武富士) 관련 채권보유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
 - 경제산업성은 29일, 법정관리를 신청한 일본의 대표적인 대부업체인 타케후지(武富士)의 부도로 자금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「**위기대응융자**」 등 지원책을 발표
 - 타케후지와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주문서나 청구서만 있으면 매출감소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
 - 타케후지로부터 융자를 받은 기업은 일본공고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자금조달 상담도 실시할 예정(기타, 특별상담실도 설치)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“민주당 대표선거 결과와 심화되는 당내 갈등”

- 14일 실시된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간 나오토(菅 直人) 총리가 前간사장인 오자와 이치로 씨를 제치고 큰 표 차이로 재선임
- 선거전에는 결과에 관계없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던 두 사람이 당내 분열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민주당내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

□ 대표선거

- 간 총리 진영은 긴장된 분위기는 없었던 반면, 오자와 진영에서는 전화 거는 방법부터 설득·권유까지 완벽하게 매뉴얼화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「정치와 돈」 문제 등으로 大敗
 - **오자와 진영의 반발**
 - “인사권을 무기로 노골적인 교섭이 있었다. 그 증거로 입각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간 총리에게 투표했다”고 반발
- ⇒오자와 진영은 선거패배 후 아카사카에서 모여 「오자와파」를 새로 결성하고, 민주당내 파벌을 탄생시켰음

□ 간·오자와 그룹 간의 대립 심화

- **오자와 그룹의 인사 배제**
 - 오자와의 민주당 지배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온 정치가는 “인사 문제로 오자와씨와 타협할 필요는 없다”고 오자와측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
 - 간 그룹인 겐바 정책조사회장과 센고쿠 관방장관이 중심이 되어 간부인사의 절충안을 제안하였으나 오자와 씨가 이를 거부.
- ⇒사실상, 오자와 그룹의 인사 배제를 결정하여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

□ 간·오자와 그룹간 최후 전쟁

- **향후 정권 운영에 지장을 초래**
 - 자민당은 “정책노선이 달라 11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다”라고 지적
 - 간 총리는 당내 대립, 자민당과 대립 문 제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, 다수파 공작에 성공할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
- ⇒예산집행 관련 법안을 결정하는 내년 3월까지 다수 공작에 성공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의회를 해산할 가능성이 큼
- 내년 3월까지 200일, 오자와 그룹과 간 총리 그룹의 최후 「200일 항쟁」이 시작되었음
- *출처 : 주간다이아몬드(2010.9.25)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기업재편과 일본 산업구조조정』 미쓰비시UFJ은행, 9월28일
*출처: <http://www.bk.mufg.jp/report/ecorevi2010/review100927.pdf>
- (2) 『세계에서 진전되는 연구개발의 집약』 미쓰비시UFJ리서치, 9월28일
*출처: http://www.jmf.or.jp/japanese/houkokusho/kensaku/pdf/2010/21sentan_09.pdf
- (3) 『높아지는 국내제조업 공동화』 농협경제종합연구소, 9월28일
*출처: <http://www.nkri.or.jp/Rep110keizai2.pdf>
- (4) 『일본기업의 경쟁력저하요인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9월30일
*출처: <http://www.mizuho-ri.co.jp/research/economics/pdf/report/report10-0929.pdf>
- (5) 『고령화의 진전과 개인소비』 미쓰비시UFJ리서치, 9월30일
*출처: http://www.murc.jp/report_pdf/20100929_155552_0909275.pdf
- (6) 『일본 우주산업 발전전략』 경제산업성, 9월30일
*출처: http://www.meti.go.jp/policy/mono_info_service/mono/space_industry/pdf/space_industry.pdf

【금주의 일정】

| 일 자 | 주 요 일 정 |
|-----------|---|
| 9월 27일(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8월 무역통계 발표(재무성) ○ 8월 기업서비스가격지수 발표(일본은행) ○ 요네쿠라 경단련회장 기자회견 |
| 9월 28일(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경황관측(상공중금) ○ 국내투자촉진회의 개최(경산성) ○ 북한,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개최 |
| 9월 29일(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일산업기술페어2010 개최(서울, 롯데호텔) |
| 9월 30일(목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8월 광공업생산지수 속보(경산성) ○ 8월 상업판매통계속보(경산성) ○ 8월 자동차생산·수출실적 발표(자동차공업회) ○ 9월 환율개입실적 발표(재무성) |
| 10월 1일(금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8월 소비자물가 발표(총무성) ○ 8월 실업률 발표(총무성) ○ 8월 가계조사 |